

해안철책 근무자들 황조롱이 구조

22사단 해안초소 근무 최하영 상병·석원재 일병... 순찰 중 '바스락' 소리에 살펴보니

지난 6일 육군 제22보병사단의 한 해안 초소 근무자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를 구해 화제다.

22사단 금강산부대 해안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하영 상병(24세)과 석원재 일병(22세)은 이날 오전 해안 철책을 순찰하던 중 철책 부근 수풀에서 무언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수상한 느낌이 든 최상병은 석일병과 함께 주위를 경계하며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신중하게 접근했고, 그 곳에서 날지 못한 채 날개만 퍼덕이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최상병과 석일병은 사람이 접근하는 데도 도망가지 못하는 새를 보곤 다쳤으리라 생각하고 조

심스럽게 품에 안고 막사로 데려갔다. 그들은 새를 작은 상자에 넣고 수건을 덮어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한편, 새의 외관상 특별한 상처가 없었기에 영양실조라 판단하고 물과 먹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인근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로 신고해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황조롱이를 발견한지 한 시간여 만에 구조대원들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다.

날아갈 힘이 없었던 황조롱이는 체감온도 영하 10℃가 넘는 혹한의 날씨에 자칫하면 그대로 동사할 수도 있었지만, 작은 소리 하나까지도 철저히 확인한 초소원들 덕분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최상병은 "철통같은 경계태세에 임하기 위해 평소 작은 소리,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도록 훈련한 덕분에 쓰러져 있던 황조롱이를 구할 수 있었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뿌듯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로 인계된 황조롱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치료를 받은 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최광호 기자

22사단 금강산부대 해안 철책 담당 소초장이 병사들이 근무 중 발견한 황조롱이를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정기총회



고성군 의용소방대 연합회(대장 함동호)는 지난 12일 간석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읍면별 의용소방대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결산보고 및 2012년 당면사항 협의가 다뤄졌다.

원광연 기자

반석군인교회 이웃사랑실천



송강포대 소속 반석군인교회(목사 김경준)는 거진읍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7일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성탄절에 전 부대원이 모은 헌금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거진리 김노미 씨 등 22가구에 20kg 쌀 한 포대씩을 전달했다.

원광연 기자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와 혁신 유도”

‘고성경찰 사랑지킴이’ 발족식... 초대 회장 김주형 경위

“앞으로 고성경찰 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치안서비스 향상 방안, 소통과 화합 등 고성경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발족식을 가진 고성경찰서 ‘사랑지킴이’ 초대 회장 김주형 경위는 “사랑지킴이는 평소 직원들의 의사를 주요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해, 조직화합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안정된 지역치안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경찰서 열린마루에서 홍순광 서장과 간부 직원 및 사랑지킴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지킴이 발족식을 갖고, 지역형사팀 김주형 경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성경찰 사랑지킴이는 고성경찰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뜻으로, 미래 지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홍순광 서장이 직접 제안해 시행하는 것이다. 최광호 기자



지난 10일 열린 고성경찰 사랑지킴이 발족식 참석자들이 파티팅을 외치고 있다.

“가족적인 고성JCI로 만들겠다”

고성청년회의소 제 34대 회장 최준현

“고성청년회의소는 남자 회원으로만 이뤄져 있지만 회원 부인들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가족적인 청년회의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참신하면서 열정을 가진 젊은 일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고성의 미래를 위해 함께 뛰고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제 34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으로 최준현 상임부회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1년이다.

간성읍이 고향인 최준현 회장(41세)

은 고성청년회의소에 2003년 가입해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과 대외협력 등에 솔선수범하며 고성청년회의소의 화합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개발, 개인능력개발, 사업능력개발, 국제와의 우호증진 등 4대 이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고성청년회의소는 1979년에 창립돼, 현재 23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금강농협 파머스마켓 정육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준현 회장은 부인 이순자 씨(39세)와 1남 1녀를 두고 있다.

원광연 기자